다락방 모임 나눔지 (9/27 주간)

만민을 위한 영원한 언약 (창 17:1-27)

일상 나눔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물어 보세요.**
찬송 하기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본문 읽기	**창세기 17:1-27**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파트너로 삼아,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 자손 대대로 영원히 이어갈 언약을 주시며, 그 언약을 대대로 몸에 새기게 하십니다.

1. 만민을 향한 축복의 언약: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1) 먼저 하나님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엘샤다이)으로 새롭게 나타내십니다. 생물학적 생산이 불가능한 아브람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을 주실 것을 암시합니다. 2) 아브람에게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십니다. 택함받은 언약의 파트너로서 온전하고 신실하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아브람(존경받는 아버지)이란 이름을 아브라함(열국의 아버지)으로 바꾸시며, 아브람에게 많은 민족과 열방의 리더로서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창 15장의 횃불 언약과 달리) 쌍방향 언약입니다. 따라서 언약의 파트너인 아브람에게 언약의 의무로서 할례가 제정됩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올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1) 이 언약은 아브람의 집안사람 모두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입니다. 아브람이 열국의 아버지요, 만민을 향한 복의 통로로서 그 지경을 확장할 것을 보여줍니다. 2) 동시에, 언약의 파트너로 택함받은 자들만 몸에 표시가 있다는 점에서 고유하고 배타적입니다. 3) 아브라함의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에, 영원한 언약이기도 합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8일째 시행해야 합니다. 8은 자연적 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창조를 상징합니다.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키겠다는 뜻입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표시하는 상징이지만, 절대 보증 수표는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백성을 거듭 책망했고(렘4:4),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라고 강조합니다(롬2:29).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찍어 주신 도장, 영원한 언약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할 언약의 파트너로 택함받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만민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마음과 삶에 새기고 대대로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2. 약속의 자녀를 통해 이어질 영원한 언약: 사래에서 사라로

이 언약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래가 동등한 언약의 파트너로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사래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동일한 축복과 정체성의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사래의 이름을 사라(열국의 어머니)로 바꾸시고, 그를 통해 언약의 자녀가 이어질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실소를 터뜨리며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크기 바랍니다'라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확고합니다. 이스마엘도 복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파트너는 사라가 낳을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웃음'이라는 뜻)이라고 하라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의 (회의적인) 웃음에 하나님은 (기쁨의) 웃음을 되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혈통이나 육신적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인간의 계획과 자연법칙을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속에 언약이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할례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이웃과 만민에게로 흘러가는 수평적 차원과 함께, 미래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대대로 흘러가는 수직적 차원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유아세례를 베풉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할례를 통해 자녀손손 이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언약이 자녀들에게로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저절로 언약의 후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녀 역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유아세례를 주는 것은 이 자녀를 언약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부모의 책임을 동반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장성한 나이가 되었을 때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언약의 자녀로 정체성을 심어주고 이끌어야 합니다.

신앙의 세대 전승은 영적 유산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모범, 영적인 환경, 그리고 지속적인 교감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 속에서 자녀와 말씀으로 대화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기도하면서 자녀에게 말씀을 심고자 할 때, 성령께서는 아이들과 우리 모두의 영혼에 거룩한 불꽃을 주십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복된 언약을 자녀 세대에 대대로 이어가는 사명을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눔 포인트

1.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4-7절)

4.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2. 이 언약에 누가 포함됩니까?(7, 9절) 언약의 표시가 무엇입니까?(11-14절)

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
9.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
11.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2.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3. 아브람과 동등한 언약의 파트너로 부름 받은 사래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과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까?(15-16절)

15.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4. 사라를 통해 언약의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은 아브람에게 어떤 새로운 도전이었습니까?(17-20절)
오늘 우리에게 할례 언약은 어떤 도전을 줍니까?

17.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0.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합심 기도	**말씀을 기억하며 / 후원 선교사님과 미자립교회를 위해 / 다락방과 교회를 위해**
모임 마무리	**광고 /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 주기도문**